

코러산트 언더월드 B23 구역 변두리에선, 아버지를 지극한 효심으로 돌보는 아들에 대하여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들의 이름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였고 아비의 이름은 그냥 오비완이었다.

약 2년 가까이 이곳에 머문 그들은 크게 나대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적당히 괜찮은 이웃에 속하는 편이었다. 아들은 위쪽 도심지에서 일을 하는 건지 일주일 중 이들은 작은 행랑을 꾸려 집을 나서곤 했다. 길을 나서기 전에 건너편 상점에 들러 아버지를 잘 부탁한 다며 몇 푼 안 되는 크레딧을 쥐어 주고 가는 모습은 이곳에선 흔히 보이는 풍경이 되었다. 상점 주인은 젊은 청년이 수고가 많다는 칭찬을 잊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씹을만한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였다.

그들이 사는 2층은 작지만 지저분해 보이진 않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습해 보이지도 않았다. 단출하나 충분히 정감 있게 느껴지는 부자의 거처를 이웃들은 한 번씩 올려보며 괜스레 뿌듯해하기도 하였다.

꽃이 피지 않은 화분들이 웅기종기 늘어선 창가에 가끔 그의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창문을 열진 않고 그저 한참을 자리에 서서 먼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 이웃들이 아는 저 이의 유일한 일과다. 그가 커튼을 치면 곧 어둠이 밀려왔다. 상점의 테라스에 앉아 기다랗고 몽툰한 담배를 태우던 이웃들은 그가 이곳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를 구경하기도 하였다. 이목구비가 제대로 보일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짙은 금색의 앞머리가 눈을 찌를 듯 아슬하게 내려왔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앞이 안 보이는 양반이라고 해도 말이야. 쫓,"

"뭐가?"

"차라리 밖에 한 번 나와 보기라도 하지. 못 걷는 건 아니잖아? 저 러니 아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지 애빌 염려하지."

제 말에 안사람은 별소리를 다한다며 혀를 찼지만 간만에 선선한 날을 맞아 게으름을 피우는 주인에겐 신경 쓸 바가 아니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한 끼. 소박하게나마 식사를 챙겨 이층집에 가져다주는 것이 부탁을 받은 상점의 부부가 할 유일한 일이었다.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했을 계란을 꺼낸 남편이 둥그렇고 길쭉한 오믈렛을 만들어 꾸덕한 소스를 부으면 아내는 그제 식기 전에 빵 두 덩이와 함께 바구니에 담아 밖으로 나선다. 슬쩍 결눈질을 하고 맥주병 두 개를 챙기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진 않았다. 오늘은 그의 아들에게 받은 것도 있으니까. 채 몇 분 만에 돌아온 아내와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한다. 저녁때가 되어 식당가를 서성이는 손님들을 호객하여 대접하고 이익을 챙기면 단조로운 하루는 마무리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테이블 위로 의자를 올리며 비질을 하던 아내가 말을 건네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이 가서 그릇 가져와."

"무슨 그릇?"

묻고 나서야 아- 하고 입을 둥그렇게 그린 상점주는 자연스레 길 건너 윗집을 올려보았다. 별걸 다 시킨다 한마디 꺼내려 했지만 만만찮게 언짢아 보이는 여인의 시선에 밀려 결국 터덜터덜 문을 나섰다. 건물 뒤로 이어지는 계단을 터벅터벅 걸어 오르니 마지막 계단 세 개엔 창틀에 올려놓은 것과 비슷한 화분들이 여러 개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찌면 그는 이 계단에 나와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먹을 말아 쥐고 문을 텅텅 두드리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답은 없었다. 조금 귀찮아져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리고 '건너길에서 왔소' 목소리를 높였다. 그제야 조심스레 열리며 반 뺨쯤 작은 남자가 머릴 내밀었다.

"엘리 씨의 남편이시군요."

놀랍도록 듣기 좋은 목소리에 상점 주인은 자신이 눈을 둥그랴게 뚫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낡은 솔을 어깨에 두른 남자는 어려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예상보다 나이 들어 보이기도 않았다. 인기척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돌아 들어가기에 이대로 문을 닫는 줄 알았는데 길게 물건을 끄는 소리가 이어진 후에 그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다. 바구니에 담긴 그릇은 설거지가 마쳐진 상태였다. 역시 제대로 보이지 않는 탓인지 그릇 모서리에 소스 자국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나름의 배려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혹시 그녀가 가져다준 게 문제가 되었다면 마시지 않고 두었으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아내가 몰래 빼내어간 맥주라는 것을 눈치 채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에 상점주인은 괜히 호탕하게 웃어 보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답해주었다.

항상 보는 이웃인데 정작 면대 면으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라 어색한 침묵이 밀려왔다. 요즘 날도 좋으니 한 번쯤 내려와서 먹으라는 말을 의례적으로 건네었다. 직접 구운 닭에 기름을 두르고 과일로 즙을 짜서 요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예의상 돌아보았을 때에서야 닫히기 직전의 문틈으로 그의 발목에 채워진 쇠줄을 볼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계단 위의 화분들은 창틀에 놓인 것과는 다르게 갈 빛으로 버석하니 말라있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아내의 질문이 그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지, 그가 나쁜 사람이나 묻는 건지 잘 알 수 없어 주인은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틀 후 그 집 아들이 품 안 가득 꽃과 물건을 안고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 일이 없었다. 한 번 들어가면 아들 역시 밖으로 나오는 일이 좀체 없었다. 그 후로 아들이 자릴 비울 때면 그의 아비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건 식당 주인의 일이 되었다. 저번에 만났을 적과는 다르게 미묘하게 잘 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상점 주인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생각하였다가 곧 그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하였다. 다음날 방문했을 땐 전날 보던 나아 보였다. 계단 밑의 쓰레기 더미를 지날 때 종이를 쌓아놓은 상자 모듬 밑으로 빈 맥주병 두 개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허탈 숙였다가 손에 쥐고 나서야 병 속이 제대로 비어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어쩐지 조급한 마음이 되어 옆에 있는 검은 쓰레기봉투 사이로 깊게 밀어 넣었다. 종이 뭉텅이 사이로 비쳐 나와 있는 빈 콘돔 상자 역시 함께 집어넣었다. 남의 집 정리함을 손수 정리해 주는 아량을 베푸는 중에도 기분은 유쾌하지 않았다. 그래도 식사 꾸러미를 건네받을 때면 군말 없이 문을 나섰다.

식당 주인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더 이상 그들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지난 새벽 그들은 갑작스레 길을 떠났으며 아들만이 잠시 들러 안사람에게만 짧게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한다. 아내는 난생처음 보는 금색의 크레딧 하나를 내밀었다. 호의를 베푼 답례치곤 상당히 과한 그것은 어느 창가 구석에 머물던 노을을 그대로 녹여 담은 것처럼 짙고 담백한 금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 보고 있자 하니 ‘그간 고맙다고 하더라고’라며 한마디를 더했다. 그 말을 전하면서도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적어도 홀가분해 보였다. 그 후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이웃 사람들은 요즘 들어 특히 흥흥해진 분위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떠들었다. 세상의 주인이 막 정해진 즈음이었다.

하늘이 바뀌는 걸 어떻게 말리나? 바닥에 엉덩일 붙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몸을 더 바짝 밑으로 붙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뜩이나 살기 힘겨워진 코러산트를 떠나는 일이었다. 그것도 아니면 함께 기뻐하는 척 하며 박수를 치고 남의 잔칫집에 손가락이라도 얹으러 가는 수밖에.

"아들 따라 좋은데 갔겠지. 그렇게 모시는데."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상점 주인은 입을 다문 채 요리에 기름을 부었다.

-

그날 밤, 납작하게 편 둥근 손끝으로 저물기 전의 빛을 더듬던 이가 상점 주인의 꿈에 나왔다. 불분명한 초점을 내리 깔며 우아한 목례를 건네던 남자였다.

[完]